



“Show!” ... 동국인 한마당 대축제가 지난 13일 캠퍼스 곳곳에서 열렸다. 우리학과 한마당, 동아리 공연과 함께 인기 가수들의 축하공연 등으로 흥겹게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수많은 불꽃들이 동국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달빛연등축제 지난 12일 열려

‘달빛연등축제’가 지난 12일 저녁 팔정도에서 열렸다. ‘2006 동국인 한마당 대축제’의 전야제이기도 한 이번 행사에는 우리학교 학생과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라틴댄스동아리 SSID 공연 △충무초등학교 학생들 시 낭송 △클래식오디세이 재즈팝 공연 △손재현 교수 무용단 공연 △박해순 교수의 클래식 기타연주 △일렉트릭 기타의 전자현악공연 순으로 이뤄졌다. 또한 시 낭송에는 시인인 고미경, 허해정, 차주일, 김화순 동문이 참가하기도 했다. 학교는 참석한 이들에게 떡과 음료, 100주년 기념품 등을 제공했으며, 참석자들은 행사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열렬히 호응했다.

박영석 동문 외 16명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

박영석(체고91졸) 동문이 다시 1%의 가능성을 이뤄냈다. 지난 3월 21일 발대식을 갖고 25일 히말라야 횡단 원정을 떠났던 박영석 동문 외 16명의 원정대가 지난 11일 에베레스트 정상에 등정했다. 이 장면은 SBS에서 인터넷 중계되기도 했다. 박 대장의 횡단이 끝나는 예상 시점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8일쯤, 성공할 경우 단일팀으로는 세계 최초로 성공하는 대기록이다.

교·직원 장기근속자 시상식

지난 11일 열린 교내 ‘건학 100주년 기념식’에서 교원 41명과 직원 23명이 장기 근속(무)상을 받았다. 서울캠퍼스 수상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교원 장기근속 표창 대상자
△30년 근속=홍기삼 △20년 근속=조형제, 이법산, 양문홍, 방현수, 송희자, 김일중, 이종욱, 이진구, 유시규, 임식, 조영석, 채환국, 오원배 △10년 근속=유지나, 신영섭, 강문선, 최인숙, 김무봉, 박윤희, 오태석, 김득영, 정응, 송일호, 장하용, 조형오, 김석태, 권익현, 유창조, 김진선, 박현창, 김용, 박상관, 임종연, 안종석, 양기주, 이창환, 홍성조, 고재석, 권동희, 신혜원

직원 장기근속 표창 대상자
△30년 근속=하정운, 차준환, 선상규 △20년 근속=구태희, 김종백, 박상관, 송종수, 김대욱, 강귀원, 오성근, 김승규, 김영철, 이영관, 한경란, 김종애 △10년 근속=김광희, 김용석, 박훈선, 백승규, 원종희, 이연주, 심선영, 김상화

한편 이날 김법중, 신하균, 유진, 백승규, 김광희, 이국환, 김상애, 신영배, 장근두, 조백동, 정인만, 최경만 직원이 ‘건학 100주년 기념 직원 공로상’을 수상했다.

2006년도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2006년도 연구업적 우수교원으로 동국학술대상에 강태원 교수(물리학), 동국학술상에 김상겸 교수(법학), 이진구 교수(전자공학)가 선정됐다. 이는 △지난 3년간 연구업적 총점 계열별 상위 10%이상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논문 5편 이상(단, 인문·사회·예체능계열 4편 이상) 게재한 교수를 추천받아 주어진 상이다. 동국학술대상 수상자에게는 1500만 원이, 동국학술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 원의 연구비가 공로패와 함께 지급된다.

총대·총여 선거 오는 16일부터 명창희 군, 송영미 양 단일후보로 출마

제38대 총대위원회장과 총여학생회장 선거가 오는 16일부터 3일간 치뤄진다. 총대 의회회장에는 명창희(정보통신 4) 군이, 총여학생회장에는 송영미(사학 4) 양이 단일후보로 출마했다. 총대의원회장의 경우 각 학과 과대표가 투표 가능하다. 한편 총여학생회장 선출은 모든 여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이번 선거는 각 단과대 건물 지정 10개 투표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예정이다. 단, 야간강좌 학생은 별도로 마련된 투표소에서 가능하다. 투표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또한 제22대 야간강좌 총학생회장 선거가 오늘(15일)부터 5일간 열린다. 정평주(야간강좌 국제통상학과3)군이 단일 출마했다. 투표 장소는 △동국관 3층 로비 △동국관 1동 2층 로비이다. 야간강좌 재학생은 모두 투표 가능하다.

건학 100주년 맞이 홈페이지 통합 개편

지난 7일 건학 100주년을 맞이하여 학교 홈페이지가 개편됐다. 일반인에게 학교를 알리고자 제작된 통합개편으로 새로 구성하고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홈페이지를 연결했다.

우리학교 홈페이지의 좌측 중앙에 동그라미 모양의 4개 아이콘으로 △서울캠퍼스 △경주캠퍼스 △사이버캠퍼스(e-Class, 사이버강좌) △입학정보(서울, 경주)로 이동한다. 화면 우측 중단의 DGU ZONE내의 아이콘으로 이메일, 다운로드센터, 멘토링, 클럽, 블로그, 메신저를 사용한다. 중앙의 MYPAGE에서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블로그·멘토링·클럽 등의 개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측 상단에서는 △지식센터=Q&A를 포함하여 전동국인이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지식 활용 공간 △커뮤니티=멘토링(서비스 개시 예정) ·블로그·클럽·나의주장·갤러리 등 인터넷 의사소통 공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3회 동국 독서 퀴즈 페스티벌 개최

‘제3회 동국 독서 퀴즈 페스티벌’ 본선경기가 지난 11일 팔정도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학생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도서관 이용을 홍보하고자 중앙도서관 주최로 개최됐다. 이번 선정도서는 불타의 세계, 삼국유사, 블루오션전략, 프랙탈과 카오스의 세계였다.

지난 9일 중강당에서 열린 예선에서 총 121지원팀 중 16팀이 통과했다. 토너먼트 형식으로 열린 본선 결과 △우승=‘진맛’(팀장=곽상관,경원4팀 △준우승=‘소화가 잘되는 불교’(팀장=임동혁,신방4팀 △장려상=‘할’(팀장=이두해,선학3), ‘잘하는 근영’(팀장=이세주,경제4팀)이 차지했다. 우승팀은 300만원, 준우승팀은 200만원, 장려상팀은 각각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받는다. ▶관련인터뷰 2면

미래 향한 힘찬 도약 100주년기념식 거행

‘건학100주년 기념식’이 지난 8일 오전, 만해광장에서 열렸다.

기념식에 앞서 ‘동국발전 100일 기도’의 회향법회와 ‘백주년 기념비’의 제막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 서울 시장이 참석해 100주년을 축하하기도 했다.

‘솔제임버’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공연으로 막이 오른 기념식 공식행사는 우리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MBC의 이재웅 아나운서와 아리랑TV의 안정현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다. 여기에는 이날 참석한 법전 조계종 총정예하의 축하법어와 김현해 이사장, 홍기삼 총장의 기념사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의 축사가 있었다. 또한 류시원, 장정안 연예인등인이 미담 서정주 선생이 작고 전에 남긴 100주년 기념 축사를 낭송하기도 했다. 이밖에 동국대학교 홍보영상과 각계 명사의 축하 영상메시지

가 상영됐고, 이번 행사의 주제인 ‘민족의 화해, 종교의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홍기삼 총장의 평화선언문 낭독과 평화선언 기념공연이 이어졌다.

기념식에는 법전 총정예하 뿐만 아니라 박경조 성공회 주교, 한광도 천도교 교령, 백도웅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회장 등 종교계 인사와 김진표 교육부총리, 정운찬 서울대 총장, Alf Zimmer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 총장, 이어령 동국대·이화여대 석좌교수 등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김진선 강원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 및 중국·인도·캐나다 대사 등과 함께 국내·외 동문, 학생, 교직원 등 약 1,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불교신자 이동수(40) 씨는 “흔히 볼 수 없는 100주년 기념식답게 준비가 잘 된 것 같아 좋다”고 말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햇볕이 뜨거워 많은 내빈들이 부채나 배부된 신문 등으로 머리를 가리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또한 오후 팔정도에서 열린 ‘건학100주년 잔치마당’에서는 밴드 공연과 준비된 투호, 족마놀이 등 각종 민속놀이와 학생 및 손님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좋은 행사였다고 평가됐다. 이날 수업이 없음에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등교한 강호선(사회과학부1) 학생은 “항상 100주년을 말로만 들어 왔지만 행사장에 와 보니 피부로 느낄

수 있어 우리학교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불교방송의 김봉래 등문은 “그동안 학교가 이렇게 발전해 왔는 줄 모르고 살았다”며 “100주년을 계기로 후배들이 학교를 빛내 사회에서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모교에 대한 덕담도 잊지 않았다.

기념식 이후 9일에는 KBS 열린음악회가, 12일에는 달빛연등축제가, 13일에는 동국인한마당 행사가 열려 건학100주년 기념 축하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금주의 동국인

30년 장기 근속상 수상한 선상규 운영본부장



‘한 우물을 파라’는 옛 속담이 있다.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 30년 동안 ‘동국대학교’라는 한 우물을 판 사람이 있다. 바로 총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동국대학교 운영본부의 선상규 본부장이다.

지난 11일, 30년 장기 근속상을 받은 선 본부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소감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한다. 지금까지의 30년 동안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한 일이 거의 없어 아쉽다고. 그런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준 모교이자 직장인 학교에게 감사해 한다.

그는 “그 동안의 긴 여정을 어떻게 간단히 말할 수 있겠느냐”며 지난날을 돌아본다. 학생복지실장으로 있을 당시 일어난 새터 사고와 다용도 학생증 최초 제작, 잠사량봉사단에서의 봉사활동 등 30년의 수많은 눈물과 보람을 추억으로 남겨준 학교가 고맙지만 하다는 그.

선 본부장은 애정이 많은 만큼 우리학교의 부족한 점이 안타깝지만 한다. “우리학교는 지나치게 상아탑적인 면만 강조해 사회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학교의 브랜드를 강조해 상품가치를 높이고, 언론매체와도 연계해 인지도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학교 발전에 대한 소망을 밝혔다.

또한 그는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학생, 교수뿐만 아니라 직원들 역시 사명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자기계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후배들에게 애정어린 충고를 잊지 않는 선 본부장.

예로부터 우리는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온 사람을 ‘장인’으로서 추대해 왔다. 30년간 우리학교를 위한 생각으로 애정을 다해 일해 온 그가 어쩌면 이 시대의 진정한 장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나〉
viki26@dongguk.edu

동국 100년, 맑은소리 좋은생각

민족사학 동국대 코끼리가 백년의 포효를 내짚습니다.

백년맞이 향연 속, 세월의 모진 채찍질에도 민족의 바른 정기 지켜냈던 동국인들 가슴엔 무한한 감격이 피어납니다.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백년에는 새로운 변화의 두드림 속에 묵은 인습, 안위, 분열을 부수고 힘차게 박동하는 가슴으로 행진과 도약의 태양을 끌어 안읍시다!



양우미
사범대 교무2



동국 100년, 맑은 소리 좋은 생각 원고모집

대상 학생, 교수, 직원, 동문, 학부모 등 모든 동국 가족
내용 건학 100주년을 자축하며, 동국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동국발전을 위한 제언 등 맑은 소리 좋은 생각의 기획 취지에 어울리는 내용

형식 자유 **분량** 100글자 인략 **원고 마감** 2006년 5월 31일까지(2차 마감)
원고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중구 필동 37가 26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전자우편) dgupress@dongguk.edu (교내네트워크) 핸드오피스 전자우편 수신 : 동대신문사 부국장 관주영

원고료와 부상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잘 된 원고를 골라 총 상금 100만원을 드립니다.(감동상 50만원, 자랑스상 30만원, 도전상 20만원)
※ 기타 문의사항은 동대신문사(☎02-2260-3491)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수회, 총장후보선출준비위원회 공식 출범

추대위 총장선출방식 반대 ... 4명 총장예비후보 등록 받아

지난 9일 교수회는 '총장후보선출준비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학내 곳곳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회는 이 성명서를 통해 '동국 발전을 기약하기 위한 최선의 길은 구성원이 주체가 되는 직선제 총장후보 선출임을 추호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며 지난 2월 재단이 제시한 추대위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 '우리학교는 총장 1인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에 너무 큰 조직으로, 경주캠퍼스의 오랜 숙원인 자율화 요구가 번번이 묵살됐고 그동안 학교 경영 구조의 왜곡으로 인해 동국 구성의 중심축 중 하나

인 경주캠퍼스(의료원 포함)가 특히 피해를 봤다'며 양 캠퍼스 교직원들의 충분한 검증을 거쳐 차기총장을 선출해야 함을 강조했다.

직선제를 통한 총장 후보 선출을 위해 교수회는 지난 2월 22일에 열린 교수총회를 통해 '총장후보선출준비위원회' 설치를 결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일에는 서울·경주 캠퍼스 합동대의원회를 통해 '총장후보선출준비위원회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총장후보선출준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함을 알렸다.

교수회에 따르면 '총장예비후보

선출준비위원회'의 역할은 △선거 전 후보에 대한 이해 도움 △10월 초부터 11월 말 선관위를 통한 공정선거 만들기 △11월 말 총장 선출 후 취임까지의 감사 등이다. 이에 이종욱(정보관리학) 교수회장은 "교수회가 2달 동안 선거관리만 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부터 '총장 후보알기 운동'을 통해 구성원들이 그 사람의 면면을 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수회는 '총장예비후보 등록 안내'를 통해 지난 9일 정오부터 12일 오후 5시까지 총장예비후보 1차 등록을 받았다. 등록 결과 염준근(통계학), 이항우(경찰행정학), 정용길(정치외교학), 한

태식(선학) 교수(이상 가나다 순) 등 총 4명이 등록했다.

후보 등록과 관련해 이 교수회장은 "사회에서는 선출직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토론, 검증 절차, 시민단체 참여 등 최선의 후보자를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대학도 여기서 예외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회장은 "총장예비후보들과 총장후보선출준비위원들이 함께 긍정적인 모임을 가져 후보선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다.

이주현 기자
nitaake@dongguk.edu

동국 독서퀴즈 페스티벌 우승팀 인터뷰

독서의 '진짜맛'을 보여준 젊은이들



왼쪽부터 반준선, 황의열, 김도경, 박상탄.

지난 11일 오후, 팔정도에서 '제3회 동국 독서 퀴즈 페스티벌'이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진짜 맛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값진 우승을 거둔 '진맛'의 객상탄(경행4), 황의열(경행4), 반준선(경행3), 김도경(경행3) 군 등 4명의 학생을 만나 이번 대회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다.

- 우승 소감은.

= 학교 친구들과 함께 재학 중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기쁘다. 매년 이 대회에 참여해 좋은 경험을 가졌던 상탄 군의 권유로 넷이 팀을 이뤄 지원했는데, 팀원들 모두가 각자 맡은 도서에 책임감을 갖고 외우다시피 준비해 막힘없이 대회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준결승에서 문제의 답에 대한 확신이 적어 떨리기도 했다. 그 때 적은 답이 정답임을 알았을 때는 굉장히 기뻐다.

- 이번 행사를 평가한다면

= 건학 100주년을 맞이해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 축제 분위기 속에 이뤄진 것 같다.

또한 지금까지와 다른 몇 가지 새로운 점들이 신선했다. 예를 들어 분야별로 도서를 지정해주고, 팀별로 진행된 점이 다. 이로써 다양한 분야의 도서에 관심이 없다면 평소에도 읽지 않을 책들을 많은 학생들이 접할 수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룰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고 본다.

독서 문재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사(敎師)에 대해서도 공부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 우리는 평소에도 책을 즐겨 읽는 편이다. 그러나 요즘 취업 준비에 얽매어 책을 읽지 않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 얕은 지식만 갖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독서를 통해 큰들의 사고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어 보기를 권한다. 인간의 사고에 대해 본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인간으로서 되새겨 봐야 할 것들이 담겨 있다.

<손>

sonhee1347@dongguk.edu

대학원 원서교부 실시

석·박사 통합과정 올해부터

오늘(15일)부터 일반대학원 일반전형 원서교부가 일반대학원 행정지원실에서 실시된다. 우편 및 방문 접수는 30일부터 4일간 같은 곳에서 받고, 인터넷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유웨이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입학시험은 다음달 17일이다. 석사과정은 전적대학 성적과 면접으로 선발하고, 박사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은 전공과 영어시험을 거친다. 한편, 올해부터 석·박사 통합과정을 선발한다. 이는 박사 학위 취득을 원하는 학생이 석사학위 논문 제출, 박사학위 과정 입학시험 등을 보지 않고, 박사 과정에 진학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졸업논문 제출

오늘부터 31일까지

2005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졸업논문 제출이 오늘(15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다.

대상자는 △이번 학기 4학년 재학생 △조기졸업 신청자 △9학기 이상 이수자 중 졸업논문 미제출자 △기수료자 중 졸업논문 미제출자이다. 제출은 주전공의 경우 학업 지도교수에게, 복수·연계 전공의 경우 해당 대학 행정지원실에 하면 된다.



"다시 찾은 새로운 꿈" ... 지난 11일 분관 중앙당에서 연례인 강원래 씨가 '강원래의 함께하는 사람 나눔'이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는 학생상담센터에서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개최한 것이다.

동약로

대담소실

"책을 놓을 곳이 없어서 복도에 쌓아놓았어요"
"출판되는 도서재고를 감당할 창고가 필요해요"
테니스장 옆 출판부·역경원 건물의 복도에는 출판부에서 낸 도서들이 한가득 쌓여있다. 출판부에서는 1년에 20여 종

이상의 도서를 새로 출판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창고가 포화상태에 이른 것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창고는 출판부에서 10년 이상 사용해 온 것으로, 더 이상 새로 이 출판되는 책의 재고를 보유할 공간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출판부는 도서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사를 학교에 표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출판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고 용도의 공간을 더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처럼 현재도 도서 보관이 문제인데 출판부와 역경원이 위치하고 있는 필동

테니스장 부지에 산학협력·공학과 기숙사가 설립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공사가 시작되면 현 건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다른 건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출판부가 이전하게 될 공간 역시 학교에서는 사무실 규모 정도로 논의되고 있어 출판부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산학협력·공학과 기숙사는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8일 건학 100주년 기념일에 맞춰 기공식을 예정해 이미 서술시승인은 받아 놓았지만, 현재 건설업체 선정 문제로 기공식을 보류한 상태다. 공간문제는 항상 대두되는 우리학교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에 학교는 건학 100주년을 맞아 산학협력·공학과 기숙사 건립을 비롯해 주차문제를 해결할 해화문 지하차도 건설, 전 필동병원 부지 총무로 영상센터 건립 등 공간문제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캠퍼스를 발전시키고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퍼스 마스터플랜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세한 공간문제에 대한 배려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주현 기자
nitaake@dongguk.edu

졸업요건 영어PASS제 토익시험(5월) 시행

영어PASS제는 졸업요건으로, 해당 대학/학과는 지정된 소정의 점수를 졸업 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정규시험(TOEIC, TOEFL, TEPS)이외의 패스 취득기회 확대를 위해서 PASS제 모의 토익을 시행합니다.

1. 접수 : 5. 15(월) ~ 5. 17(수) 24:00까지
2. 접수증 출력기간 : 5. 24(수) ~ 5. 27(토)
3. 방법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재학생서비스 - 외국어PASS제 - 영어패스시험 신청 - 응시료 입금 - 접수증 출력
4. 시험 : 2006. 5. 27(토) 10:00 ~ 12:30 해화관 2층, 동국관(M) 3층
5. 대상 : 졸업대상자 중 영어PASS제 미취득자
6. 응시료 : 5,000원
7. 입금마감일 : 2006. 5. 17(수) 24:00까지 (미입금시 취소)
입금계좌 : 조흥 371-03-012083(국제교육원)
8. 접수 주의사항 (아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취소 가능)
가. 학적부에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모든 학사서비스가 제한됩니다. 학적부에 반드시 사진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마감일까지 반드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휴일입금시 본인임을, 학번 또는 학과 표기: 예, 홍길동2025123)
다. 기 패스자 및 미 입금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시험일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접수증, 연필(샤프)
10. 문의 : 국제교육원 (해화관 1층, 2260-3471, 3590)
11. 시험 주의사항 :
가. 9시 45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10:00 이후는 절대 입실 불가
나. 신분증, 접수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입실할 수 없습니다.
다.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시험입정을 받지 못합니다.

제14회 에코포럼 정례세미나 개최

햇살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을 맞이하여 '지속가능발전과 기업경영'이라는 주제로 제4기 에코포럼의 두번째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목표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오늘날의 기업은 경제적 번영, 환경의 질,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달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환경경영 전략과 성공요인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세미나에도 많이 참석하시어 격려해주시고,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06년 5월 19일(금요일) 오후 3:30 ~ 오후 6:00
장 소 : 동국대학교 문화관 1층 덕담세미나실

- ▶주 최 : 에코포럼
- ▶주 관 : 동국대학교 부설 생태환경연구센터
- ▶주 제 : 지속가능발전과 기업경영
 - 좌장 : 안병훈(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 발표 : 이병욱 (LG환경연구원 원장/한국환경경영학회 회장)
제목 : 지속가능발전과 기업경영
 - 토론 : 김중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장)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황진택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상무)
홍성태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문 의 : 전화 : 02-2260-8648, 팩스 : 02-2260-8649
이메일 : ecoforum@dongguk.edu

5월 독서토론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교양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독서인식을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5월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독서토론 프로그램이란
학생(대학원생 포함)들과 독서토론을 원하는 도서를 신청받아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임.
2. 일 정
가. 일 시 : 5월23일(화) 오후4시 - 6시
나. 장 소 : 중앙도서관 사회과학실(지하층) 특수자료실
다. 진 행 : 경제학과 김종일 교수
라. 선정도서 : 왜노년만 한국경제 / 장학준 정승일 대화. 부키 2005
마. 정 원 : 10명
3. 신청방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신청순으로 모집하며 토론도서 관련 동아리의 단체신청과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신청도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독서토론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중앙도서관 독서증진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
* 토론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1만원)이 지급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34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5·18의 정신'에서 배울 점

끝나지 않은 저항과 대동세상 구현

대한민국은 과거사를 청산 중이다. 아니 과거의 참혹한 현장을 되짚어보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며 반성과 성찰을 국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여기에 5·18도 빠지지 않는다. 그냥 덮고자해도 어쩔 도리가 없어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세상의 이목을 잡아당긴다. 어떤 이들은 이미 끝난 일을 왜 자꾸 들추냐고도 항의한다.

그러나 5·18은 항상 현재진행형이다. 두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시의적절한 사건으로 언급하자면 작금의 평택 대추리 상황이 바로 부각된다. "5월정신 계승하여 대추리 투쟁 승리하자"는 외침은 낯설지가 않다.

군부대와의 충돌은 26년 전의 5·18을 떠올리게 충분하다. 그 형국은 분명히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군부대와 시민의 정면충돌과 확대연상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5·18

또 하나는 5·18의 실제적 진실과 닿아있는 대목이다. 5·18은 많은 부분에서 그 실체가 밝혀졌고, 역사의 진보를 이루는 데 청산할 것은 청산한 경우에 속한다. 전두환 일당을 법적으로도 심판하여 그 죄를 묻는 것을 포함하여 명예 회복과 보상 등이 이뤄졌다. 이런 이유로 많은 일반적인 국민은 5·18의 완료를 믿고 있다.



논단

조진태
5·18기념재단 사무처장

그러나 진상규명은 부분적으로 이뤄졌고 실종자들의 시신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발표책임자를 밝히는 문제와 실종자의 행적을 추적하는 일 등은 미해결 문제 중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지금 국방부 산하 과거사정리위원회와 대통령 산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 삼아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활동 중이다. 기대가 큰 부분이다. 바로 사정이 이렇게 때문에 때가 되면 별 생각없이 추모하고 기념하는 것에만 머무를 수 없는 5·18의 기억투쟁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의 해결과정은 우리사회 과거청산의 모범적 사례에 속한다. 5·18을 통해서 제주 4·3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의 실체를 규명하기위한 정권적 차원의 통교가 트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냉전 이데올로기는 물론, 남북 간의 전쟁으로 인해 전쟁외적인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혹하게 살해되고 피해를 입었는가.

눈으로 보았으나 말할 수가 없었고 세상에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숨죽여 살아왔던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죽은 사람들의 제 사상을 차릴 수 있었으며 마침내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절차를 새롭게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5·18이지 않는가.

그러나 완전하게 규명되지 않은 5·18의 실체는 영원히 미완의 것으로 남을 지도 모른다. 전두환 일당이 법의 심판을 받자마자 김대중정부는 모두 사면복권시키고 말았다. 용서도 구하지 않은 집단들에게 무조건 화해라는 이름으로 죄를 사해준 것이다. 처벌을 눈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실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동자들에게 대한 더 많은 조사가 이뤄져야 했다.

이제 그 문제들은 가해현장에 있었던

군인들의 양심고백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범죄의 최고 책임자가 완벽하게 사면되었는데 누가 자신의 죄를 실토할 것이며 용서를 구하려하겠는가. 역사적인 과거청산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시민의 힘이 만든 대동세상

5·18은 비무장, 비조직적인 시민이 가장 잘 훈련된 군인과 맞서 싸워 해방공간을 열었던 인류사의 보기 드문 사건에 속한다. 그것도 남과 북이 준 전쟁상태로 대처 중이었고 손쉽게 고립될 수밖에 없는 도시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저항의 지도부이자 실행자였고 항쟁의 물리력이자 기획자였다. 그리고 짧았지만 대동세상을 열었다. 계급계층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너나할 것 없이 이웃이자 가족이었던 대동세상.

그러므로 필자는 5·18의 정신을 저항과 대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찌보면 인류의 공극의 염원이자 유토피아를 그리고자 한다면 5·18에서 그 상상력의 원형을 찾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다. 5·18이 여전히 시대의 이슈와 함께 호명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 과언일까.

인류해방과 평등의 세상이 올 때까지 항상 5·18은 살아 꿈틀들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사설

100주년과 새로운 도전

잔치는 끝났다. 모두 잘 치러냈다. 자신감도 얻었고 자부심은 더 생겼다. 무엇보다 대외협력처가 즐겁다. 학교발전기금 담자가 평소보다 늘고 있다. 격려 전화와 문의 전화도 찾아오는 편이다. '티끌을 모아 태산을 만들어 달라'는 조용한 호소가 동문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마침내 동국 구성원들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지는 기분이다.

그러나 이게 100주년의 끝은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 앞에는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다.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종의 명제이다. 그것은 우리들만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대학의 변화를 유도하는 교육당국의 확고부동한 철학이다.

제일 당면과제가 구조개혁이다. 대학은 많은데 입학생 수는 점점 줄어든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은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다. 흔히 말하는 일류대학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정면으로 대결해야 할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송도 신도시 지역에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분교가 들어오지 말란 법이 없다.

우물 안 개구리에게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 오늘 우리 한국의 대학들은 백화점식으로 벌여놓은 학과를 통폐합하고, 학제간 융합과제를 모색하며, 과다한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당장의 발등의 불이다. 그러나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 구성원 내부의 강력한 반발을 살 게 뻔하다.

내부의 반발 때문에 구조 개혁 시기를 놓치면 당장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끊기게 된다. 그러면 다른 대학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발전은커녕 퇴보의 길을 걷게 된다. 경쟁력 있는 학과든 없는 학과든 모두 함께 나락으로 떨어진다. 공동동망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학교는 이번 BK21 사업에서 두 분야에서 선정되었다. 10여 개 이상씩 선정된 경쟁대학들을 언제까지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야 할 것인가. 저조한 실적의 주요 원인이 구조개혁 성과의 부진이고, 연구 실적 부진이다. 학생 정원을 줄이지 못하고, 교수 연구 업적이 부진한 것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근본원인인 것이다.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는 오직 문제해결 단계일 수밖에 없다. 연료를 트고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지역주민과 손잡은 학내 행사 많아져

일회성 행사에 아쉬워 ...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마련해야

100주년을 맞아 요즘 학교에서 학내구성원과 함께 중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지난 9일 대운동장에서 열린 '열린음악회'에는 우리학교 학생, 교직원 뿐만 아니라 중구민들도 많이 참석해 다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열린음악회를 보기위해 왔다는 중구민 이상덕(49) 씨는 "집 근처라 흥분몰을 보고 가족과 함께 찾아왔는데,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다"며 공연을 본 소감을 말했다. 지난 12일 열린 달빛연등축제

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 공연을 관람하고, 퀴즈를 함께 푸는 등 학내구성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최근 축제시즌이 다가오자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 지역주민과 연계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총학생회는 축제기간인 오는 17일부터 3일 동안 '함께 하는 오므라이스'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긴 오므라이스를 만들고, 만든 오므라이스를 지역주민들과 나눠 먹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이렇게 각 대학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행사가 일회성에 그쳐 지역사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학교와 연계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우리학교 역시 일회성 행사참여를 제외하고는 시설이용이나 지속적인 프로그램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시설이용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학교는 현재 중구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구민 열람실'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지만, 중구민의 열람실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다. 이와 관련해 중

앙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중구민들에게 열람증을 발급해서 열람실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열람증 발급받은 중구민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에서는 지역사회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 역시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강조되기 보다는 학생들이 학점을 취득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봉사활동 제도의 본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대학은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식의 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학교가 지속적으로 지역과 연계성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학교가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려면 주민과 교류하고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실질적인 제도 확충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김주길, 부편집장: 김지혜, 총재: 윤정길, 사장: 정길상, 감지혜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동국 건학100주년!

새로운 동국역사의 창조

1%의 정성이면 100% 이루어집니다.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
 후배사랑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동국대학교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과 21세기 비전실현을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덕성과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전하는 리더,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리더 — 이들이 바로 동국의 희망입니다. 후배사랑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 발전기금 참여 및 문의 ※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실 (02-2260-3300, 3794~5)

<p>기부참여방법</p> <p>- 월납, 분할납부로 큰 부담없이 모교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p> <p>월3만원×10회(8년) 약정시 = 3,000,000원</p> <p>월5만원×6회(5년) 약정시 = 3,000,000원</p> <p>- 기타 금액, 일시납부등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합니다.</p>	<p>■ 무통장 입금</p> <p>예금주 : 동국대학교</p> <p>* 조흥은행 313-03-002943 * 농협 360-17-003822</p> <p>* 국민은행 068-01-0373-353 * 제일은행 107-10-119210</p>	<p>■ 자동이체(CMS)납부</p> <p>CMS는 은행에 직접까지 않아도 약정하신 분의 지정계좌에서 학교로 매달 약정하신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매월1일, 18일중 택일)</p> <p>> 신청 :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실(전화 02-2260-3300, 3794~5)</p>
---	---	--

등록금한번 더 내기에 참여하시면... 후원해주신 분의 동국사랑과 정성을 소중히 받들어 아름다운 이름으로 후학들과 모교에 영구히 기억되도록 건학100주년 기념조형물에 새겨 보존하겠습니다.

인간을 향하는 도심 속 자연캠퍼스

공간 확보와 녹화사업으로 캠퍼스 탈바꿈

엘빙열풍에 이어 예코열풍이 캠퍼스에 찾아왔다. 요즘 각 대학들은 친환경적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캠퍼스 공간을 친환경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학교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캠퍼스가 자연 속에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예코캠퍼스'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음식과 주거공간과 관련해 불기 시작한 '친환경 바람'은 캠퍼스를 푸르게 물들였다.

예코캠퍼스(Eco-campus)는 친환경적 캠퍼스를 뜻하는 말로, 대학들은 예코캠퍼스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예코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대학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업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일이다. 캠퍼스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드는 것은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서울대와 송실대를 비롯한 많은 학교들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서울시와 중구청의 도움을 받아 지난 4월부터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실시해 해화문과 연결된 4.7m 보행전용 도로 공사과 옹벽공사가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다.

보행자도로 양쪽에는 소나무 등 사철녹음과 꽃들을 새로 심어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동시에 보도블럭을 새로 깔아 보행자들의 편의성도 높였다.

서울대의 경우 2003년 10월 정운찬 총장이 예코캠퍼스 선언을 하면서 예코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보도블럭을 까는 작업을 시행했다.

이화여대의 경우 ESCC(이화삼성캠퍼스센터)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적 캠퍼스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화여대 시설팀의 한 관계자는 "캠퍼스 지하를 개발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상에는 대단위 녹지를 개발해 친환경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내 구성원들이 쉴 수 있는 실외 휴식공간을 만드는 일도 예코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다. 우리학교는 현재 별관열람실과 본관 건물 옆에 휴식할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하고, 상록원 옥상에 녹화 사업을 통해 학술적 목적과 함께 자

연 친화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학교는 동국 백년비 주변 주차공간을 줄여서 10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학생들이 모여 휴식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등 휴식 공간 확보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캠퍼스 마스터플랜 사업으로 지하 4층의 360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을 세워 1층은 학생 편의공간, 2~4층은 지하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관리팀 박정훈 팀장은 "이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동국관 주변을 녹지공간과 교육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의 학교 환경 정비 사업에 대해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녹지공간과 보행 공간, 차량 공간을 구분해서 각 공간의 성격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적 캠퍼스로 발전시키기 위한 학교 환경

▶올해 3월부터 새롭게 마련된 백승텬터. 많은 학내구성원들이 쉼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해화문 옹벽 공사로 보행도로나 한결 깔끔하고 주변의 다양한 꽃과 나무들로 통학길이 더욱더 아름다워졌다.

정비사업은 대학경쟁력에도 연관돼 있다. 학교 환경 정비 사업이 캠퍼스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동시에 친환경성을 추구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지나치게 조경사업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대학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단순히 대학경쟁력을 높이는 데만 치우치지 않고 캠퍼스를 자연과 교육,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친환경적 장소로 만들어 갈 수 있길 기대한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본관 옆에 휴식공간을 마련해 많은 학내구성원들이 이용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유익하게 이용하는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친환경 캠퍼스를 찾아서

녹색빛깔로 가득찬 캠퍼스 공간



◀자연과 소통하는 국민대 도서관.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는 보도블럭을 깔아 편리성과 통일성을 더했다.

▶송실대의 원형분수. 광장의 중심에 설치된 분수와 주변의 꽃밭은 지나다니는 사람으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봄에 들은 어린잎들이 진한 녹색으로 변하는 요즘, 캠퍼스 곳곳을 푸른 나무들로 물들이고 있는 국민대, 송실대의 캠퍼스를 방문했다.

국민대는 북한산이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을 심분 활용하여, 도약 2010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최고의 자연과 인간 친화적인 캠퍼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문에서 보이는 학교 전경은 푸름 그 자체였다. 새로 조성했다는 법학관에서 예술관까지의 빛나루 길과 같은 자연과 어울린 캠퍼스 환경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휴식,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산과 어우러진 학교 곳곳이 초록의 싱그러움을 발산하고 있었고, 조형작품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과 잔디밭 사이에 오솔길을 낸 복약관 앞은 외국 대학의 분위기를 낸다.

캠퍼스 녹지 외에 '북한산과 녹색 캠퍼스'와 같은 환경과 관련한 교양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녹색 캠퍼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녹색전도사로 활동하여 시작한 차 없는 캠퍼스는 지금까지 국민대가 보다 자연과 융화할 수 있게 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녹색 캠퍼스 함께 하기'란 수업을 듣고 있는 김지영(법1) 양은 "학교 캠퍼스와 자연과의 어울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아스팔트를 엮고 화단을 만들어 꽃을 심는 활동을

했는데 색다른 경험이었다"라고 했다.

한편 송실대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분수 설치, 캠퍼스 곳곳의 휴식 공간 확보 등의 환경 정리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은 송실대와 서울시가 함께 진행한 것으로 송실대 정문 앞 도로 800m 구간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다.

시냇물과 미니 폭포, 나무들이 어우러진 그 길은 담장을 허물고 지어져서 그런지 시야가 확 트여 학교와 그 주변을 하나로 이어주는 듯 보인다.

학교 안에는 자투리 공간 곳곳에 벤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학생들의 휴식공간이 되어 좁은 물론이고 목재책상에 콘센트도 설치되어 있어 스터디나 조별활동을 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어 보였다.

캠퍼스에서 만난 김지혜(섬유공학3) 양은 "캠퍼스가 예뻐져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답답한 답을 허물어 친근한 느낌이 들고 학교 이미지가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학교 정비 사업에 관해 이성구 시설관리 처장은 "송실대 출신 시인의 시를 액자화 하여 강의실에 걸거나 캠퍼스 내에 학교 상징 조각 같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일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부
dgupress@dongguk.edu

동국대 출판부 발간도서안내 <http://home.dongguk.ac.kr/~book> Tel. 02)2260-3483~4 Fax. 02)2268-7851



1 불교생태학 총서3
불교와 생태학
동국대학교 BK21불교문화사상교육연구단 편저
2006/신국판/522면/25,000원
ISBN 89-7801-153-5 94220

동국대학교 불교생태학총서 시리즈 제3집으로 출간된 이 책은 동국대학교 BK21 불교문화사상교육연구단이 스리랑카 국립대학교 페라메니아 대학과 함께 '불교의 생태학적 측면들'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공동학술세미나 발표논문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엮은 것이다.

현재 불교학을 전공하는 전세계적 석학들은 생생 배경이 다른 불교와 생태학이라는 두 학문의 영역을, 현대 인류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종교의 지리가 새롭게 조명되면서 이론과 실천을 친생태적인 학문으로 재구성하려는 경향이 주요연구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큰 맥락 속에서 기본적인 철학의 입장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고 서로 배타적이지 않은 두 영역을 학제간 통합의 주요매개로 설정하여 불교생태학이라는 새로운 학

문 패러다임을 형성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스리랑카, 인도, 한국의 불교학자들이 참여하여 발간된 '불교사상의 생태학적 이해'는 자연을 이용과 착취의 수단적 대상으로 본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오늘날 생태계 위기에 대한 논의에 있어 주요 논의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제들을 불교생태학적 입장에서 풍부한 논의를 펼쳐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답과 실천을 불교의 상생과 화해의 정신에 따라 인간과 자연의 상호의존적·순환적 과정 속에서 인식하고서 이를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의 생태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위한 작은 초석이 될 것이다.



2 동국총서 14
아시아의 등불
위대한 출가
에드윈 아놀드 지음 / 백원기 옮김
2006/국판/266면/12,000원
ISBN 89-7801-157-8 94890

영국 서색스주 출신의 에드윈 아놀드 경(1832~1904)은 시인 겸 언론인으로 서구의 불교대중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시인이다. 그는 로체스터의 킹즈 칼리지에서 공부한 후, 옥스퍼드대학 재학 시절 '뉴디게이트' 상을 받았으며, 1856년 25세의 젊은 나이로 버밍햄의 킹 에드워드 6세 스쿨에서 잠시 교편을 잡은 후, 인도 푸나의 데칸 산스크리트 칼리지의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처음으로 동양에 관한 신비로운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일대기는 서구인들에게 부처님을 완전 선(善)을 행한 인물로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을 불러 일으켰다. 그가 너무나 이국적이고 너무나 서양과 다른 동양문화와 철학에 대해 배우게 된 것도 이곳 인도에서였다. 이러한 것들에 매료된 그는 고타마 붓다의 심오한 '가르침'을 포함한 동양철학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해 준 필리터와 산스크리트 문학

의 보고(寶庫)를 연구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물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대기를 묘사한 그의 대표작 '아시아의 등불'(Light of Asia, 1897)이다.

'아시아의 등불'은 유럽을 비롯해 미국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대기를 일반인에게 최대로 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록 이 시가 독특한 형식, 이상한 이름들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인도에 관한 신비로운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일대기는 서구인들에게 부처님을 완전 선(善)을 행한 인물로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을 불러 일으켰다. 그가 너무나 이국적이고 너무나 서양과 다른 동양문화와 철학에 대해 배우게 된 것도 이곳 인도에서였다. 이러한 것들에 매료된 그는 고타마 붓다의 심오한 '가르침'을 포함한 동양철학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해 준 필리터와 산스크리트 문학의 보고(寶庫)를 연구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물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대기를 묘사한 그의 대표작 '아시아의 등불'(Light of Asia, 1897)이다.

5월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다매체시대에 영화를 감상하고 그 작품과 관련 텍스트를 비교 토론함으로써 영상 문학의 이해를 높여 학생들의 독서력을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 시키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5월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이란** : 한 가지 테마를 정해 관련 도서들을 읽은 후 영화나 DVD를 단체관람하고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일 정**
제2회 영화감상토론
일 시 : 5월15일(월) 오후3시~6시(예정)(개봉관 사정에 따라 추후확정)
장 소 : 대안극장
진 행 : 체육교육과 손재민 교수(여학생실장)
선정영화 : 노스 컨슈티 / 니키 카로 감독 2005년작
관련도서 : Class Action / Clara Bingham
정 원 : 10명
제3회 영화감상토론
일 시 : 5월24일(수) 오후3시~6시(예정)(개봉관 사정에 따라 추후확정)
장 소 : 대안극장
진 행 : 영화영상학과 조종훈 교수
선정영화 : 다윈지 코드 / 톰 허워드 감독 2006년작
관련도서 : 다윈지 코드 / 덴 브라운 지음
정 원 : 10명
- 신청방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영화 관련 동아리의 단체신청과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신청자는 관련 도서를 필히 읽어와야 하며(원서제외), 영화감상 후 바로 토론이 진행됩니다.
영화감상토론 신청 후 무안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중앙도서관 독서증진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개봉과 상영장의 경우 참여한 학생들에게 입장권과 음료가 제공되며 도서상품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34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학100주년 기념 축사

백상(白象)의 보현행이
억겁토록 영원할진저



도림법진 대중사
대한불교조계종 종장

강도의 기운이 쇠미해져 국운이 기울고
일월(日月)의 빛마저 그 색(色)을 잃어버리니
산하(山河)의 중생들은 가야 할 길을 모른 채 방황하는지라

눈밝은 선지식들의 해안은 1906년 5월 8일에 거사(擧事)하여
도성(都城)의 안산(案山)인 남산골 영명(靈明)한 자리에
배움터의 당기(幢旗)를 지주(支柱) 높이 내걸고
인재의 요람인 명진학교(明進學校)를 출범시키니

이후 중앙불전(中央佛專), 해화전문(惠化專門)의 기치(旗幟)아래
그 진리의 등불을 면면히 이어오니
해방 이듬 해 동국학원되어 영화미소의 꽃을 피웠도다.

백상(白象)의 보현행(普賢行)이 일백년동안
서울 경주 일산의 교정으로 그 발자국이 간단(間斷)없이 이어지니
작금 이십만의 활발한 인재들이 사해(四海)로 내달리는구나.
후(後) 백년을 위한 또 다른 주초석(柱礎石)인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교단과 재단 그리고 대학의 지혜결집을 통하여 반드시 성사(成事)시킬진저.

일백성상(一白星霜) 역사의 동국대(東國大) 수학도량(修學道場)은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지고
한방(韓方)과 양방(洋方)이 치병원융(治病圓融)을 지향하고
서울과 지방이 연계를 이루고
세계와 한국이 형제를 맺어가니
그 백년이 천년되고 그 천년이 만년되어 일억겁(一億劫)토록
불이(不二)의 땅이 되어 영원하고 또 영원할진저.

사부대중들은 밝고 맑은 눈으로
항상 성성(惺惺)하게 깨어 있으면서
무상의 잘나 속에서 영원한 억겁을 살아가야 하노니

과업(課業)은 반드시 화두(話頭)처럼 따르고
이룰 것은 반드시 원력(願力)으로 승화하면
그 옛날 나란타 대학과 영산회상(靈山會上)이 차토(此土)에서 서로 만나
민족과 인류사회와 대자연 속에서 피안(彼岸)의 불국토가 현현(顯現)할진저.

불기 2550년 5월 8일 동국대학교 건학100주년 기념일에는

- 동국대 건학 100주년을 찬(讚)하며 -

건학100주년 기념 축사

시대에 활약할 참다운 인재를 양성하는 동국대학교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존경하는 법전 종정스님과 불교계 지도자 여러분, 흥기삼 총장님과 원용선 총장회장님을 비롯한 동국대학교 관계자 및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 불교종립대학이자 민족사학인 동국대학교의 건학 100주년을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국대학교는 구한말 전국 17개 사찰의 불교계 선각자들이 교육 구국의 열념으로 설립한 '명진학교' (明進學

校)를 모태로 하여 오늘 건학 10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919년과 1944년에는 항일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일제에 의해 강제 폐교당하기도 하는 등 식민통치하에서의 민족정신 양양과 민족지도자 양성을 위한 숭고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왔습니다.

해방 후에도 대학교육의 기회확대와 인재양성에 진력하여 특히 종교·문학·연예 등의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훌륭한 인재를 배출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동국대학교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문인(文人)의 요람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만해(萬海) 한용선 선생을 비롯하여 미당(未堂) 서정주, 청록파를 대표하는 조지훈, 소설가 황석영·조재래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다수의 문학가를 배출해 왔으며, 이러한 문학적 전통은 현대의 대중 예술계로 이어져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류(韓流) 열풍의 주인공들인 많은 대중 예술인들을 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진리를 탐구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대학 본래

의 사명입니다만, 지식과 정보가 국가 발전과 부의 원천이 되는 지식정보시대에는 대학의 이러한 사명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간의 지식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오늘날에는 창조적 지식의 생성과 활용능력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핵심요소이며, 그러한 요소들은 바로 대학에서 창출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 교육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선정결과가 발표된 2단계 BK21사업,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산학협력체계 활성화 지원사업,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NURI) 등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동국대학교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사업에 적극 호응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sia, Bio, Culture를 뜻하는 ABC 특성화전략을 수립, 아시아지역학과 생명공학, 영상문화 콘텐츠 등 3개 분야를 아우르는 동국만의 학문적 특성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산에 경기북

부 최대의 종합병원을 개원하여 첨단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바이오클러스터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국내 최초로 한국공학 교육인증원(ABEEK)으로부터 공학인증대학으로 인증평가 받음으로써 오래전부터 타 대학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과기부와 한국과학재단의 '2004년도 기초과학연구사업성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과제당 논문 게재수 및 SCI 논문 게재수에서 두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흥기삼 총장님을 비롯한 동국대학교의 전 동문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동국대학교가 지식기반시대에서 활약할 참다운 인재들을 길러내어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동국대학교의 건학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세계 속의 동국대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학100주년 기념 축사

세계를 밝힐 새로운 동국 100년의 빛



박은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존경하는 법전 종정 예하, 총무원장 지관스님, 재단이사장 현

해스님, 흥기삼 총장님, 자리를 함께 하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동국 가족 여러분.

오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족사학, 동국대학교의 건학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동국의 지난 100년은 우리 민족과 함께 한 자랑스럽고, 고마운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구한말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불교 선각자들의 소중한 뜻을 담아 출발한 이래 일제 강점기에는 항일정신으로, 해방 후 지금까지는 자유와 정의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러한 동국의 정신을 배우고 익힌

자랑스러운 20만 동문들은 그동안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추적 존재로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정말 고맙고, 자랑스런 100년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구명하고, 이를 널리 전수하며 실천하고 계신 모든 동국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동국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국의 새로운 100년은 그 이름 그대로 '햇빛밝은 동쪽의 아침나라'를 밝히는 가장 큰 빛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족의 사학이자, 21세기 인류 문명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서서 세계로 뻗어 나갈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 주시길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념식의 주제처럼 '민족의 화해와 종교간 화합'을 이루는 데도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민족의 사학 동국대학교의 건학 10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동국대학교와 20만 동국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고, 크게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선 신임 총동창회장 인터뷰

“20만 동문 하나로 화합해 학교 발전에
이바지 하는 동창회 될 것”



명진관 담벼락, 지하철 역, 남산 뒤안길 등은 동국인들에게 옛 추억을 더듬을 수 있는 연결고리이다. 마찬가지로 사회 곳곳에 진출해있는 20만 동문들은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소중한 인적네트워크로 그 중심에는 우리학교 총동창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총동창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찾은 사무실이 자리한 인사동.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과거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동창회와 썩 잘 어울린다. 인자한 미소의 제23

대 총동창회장 원용선(영문63졸) 동문은 지난 달 18일 총동창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 취임했다. 이는 동문들 사이에서 현 세대에 맞는 경제인이 의견 분열 없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어 총동창회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추대된 것이다.

그는 임기 중 최우선과제로 동창회관 건립 기틀마련을 손꼽았다. 현재는 재단 및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공학관 착공 부지 가운데 1,000평을 동창회관 부지로 약속받은 상태이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동문백여 명을 직접 만나 동창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소액 재미군단의 역할도 중요하기에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여론 확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뿐만 아니라 동문 상호간의 화합 및 우의 증진과 각 지부간의 유대관계 증진 역시 동창회가 주력하고 있는 집이다. 이를 위해 '동국인의 밤'을 더 내실 있고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리고, 매년 경주에서 개최되던 '동국인 체육대회'를 내년부터는 서울로 장소를 옮겨 학교·동창회·학생이 삼위일체가 되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8회를 앞두고 있는 '동국포럼' 역시 연사를 다양화하는 등 동문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1956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발간되는 동국인명록 및 CD-ROM제작이나 매년 열리는 'Home Comming Day' 등도 주요한 행사이다.

무엇보다도 동창회의 역할은 동문들 간의 단탄한 화합의 장이 되고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원 회장은 "얼마 전까지 소원했던 재단 및 학교와 동창회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급진전되고 있으며 이는 획기적 개선"이라고 평했다. 지난 동국백년전, 건학 백주년 기념행사, 열린 음악회 당

시 다수의 동문들이 참여한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교·재단·동창회·학생이 사위일체가 될 때 개인의 발전에서 학교·사회의 발전으로까지 이어나갈 수 있다"며 동창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촉구하는 원 회장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동문들을 한데 어우를 수 있는 포부와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지난달 27일 열린 '동국발전을 위한 동국인 화합의 장'에서의 모습.

건학100주년기념

출판도서 소개

우리 고향 중의 고향이며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동문회 / 연기사



우리 문학의 불교적 자양분을 실제적으로 제공하여 왔던 우리학교 불교학과가 100수를 맞아 동양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불교학과 동문들의 문학세계를 집성하기 위해 동문 문인 시화집을 간행했다. 만해 한용운을 비롯하여 석정 신석정, 월하 김달진, 미당 서정주, 지훈 조동탁, 파하 이원섭, 남연 이형기, 다모관을 석지현 등은 승려로서 또는 불문을 넘나들며 배우고 가르치는 교수 및 문인으로서 불교적 세계관을 문학적으로 탁월하게 형상화 해냈다. 시화집 간행의 취지는 우리 민족문화 속에서 불교가 제시해온 문화적 전통과 비전 위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지닌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불교학과 동문들의 자긍심을 제고시키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 불교적 세계관을 확장하는 문화의 사도들을 양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UNDER THE PIPAL - Praying to Buddha on Dongguk University Centenary
동국대학교 동국포스트



우리학교 건학 100주년 및 창간 40주년을 기념해 우리학교 영자신문사인 The Dongguk Post는 그동안에 게재된 불교 관련기사를 모아 책자를 만들었다. 이 책에서는 창간호부터 최근까지 원각스님, 우리학교 불교대학교 교수 등 불교와 관련한 인사들에게 받은 기고글을 포함하여 동국포스트 학생기자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히 불교 교리에 대한 내용만을 정리하지 않고 '불교와 동국대', '불교와 문화' 그리고 '불교와 학문' 총 3가지의 분야로 나뉘어 있다. 영어로 쓰여져서 우리학교를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불교종립 대학교인 우리학교를 홍보하는 중요한 책자가 될 것이다. 출판 기념회는 동국포스트 창간일에 맞춰 오는 6월 3일 열릴 예정이다.

열린글터

독자 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리뷰인
직접 찍은 사진이나 인화, 인명, 4대 분량의 글 등을 게재합니다.
제약된 분량은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gupress.com
TEL : 226-3451~2 FAX : 2279-1270

주인의식은 학교발전의 초석

우리학교가 올해로 건학 100년이 되었다. 100주년을 맞이하여 학교에서는 여러 다채로운 행사들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학교 측은 지난해 비전 선포식에서 ABC 특성화, 교육력 강화, 교육 여건 강화의 '3대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것과 같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학교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인들에게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학교는 발전전략으로 '3대 마스터플랜'을 내놓았다. 이 3가지의 발전 전략은 기존의 학교 특성을 살리고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강화시

키며 세계화에 발맞춰 동국대를 아시아의 허브로 성장시키겠다는 점에서 좋은 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가 아무리 좋은 발전전략을 내세운다고 해도 학생들이 관심도 없고 계획에 협조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면 학교 측만의 노력으로 우리학교가 발전하기는 힘들다.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처럼 학교와 학생이 함께 노력해야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새마을 운동에서 일부 부락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하여 마을을 이루고자 했던 사업을 이루어내어 그 결과가 사회 전체에 큰

대화 운동을 불러왔듯이 학생들이 학교 측의 발전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학교로 만들자는 책임감과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면 학교 측이 가고자했던 방향으로 수월하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3대 사학으로 불려졌던 우리학교가 예전보다 그 위상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백주년을 기념한 여러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 측의 발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업에 매진하며 자기계발에 힘쓴다면 머지않아 3대 사학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주화(법과대 법1)

학교생활에 관한 나의 에세이

벌써 학교생활을 시작하지 1년이 지났다. 작년에 무엇을 하며 1년이란 시간을 보냈는지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약간은 늦은 나이로 새내기 생활을 시작했던 나였지만 동기들과 함께 어울려 대학 생활을 마냥 즐겼다. 학교에 늦게 들어오게 되면서 했던 다짐들은 어느새 뒷전이 되어 있었다. '늦게 온 만큼 열심히 하자!' 가슴속에만 담아둔 채로 1

학년 새내기 생활을 보냈다. 하지만 그 다짐이 공부야 아닌 다른 것으로 다시금 와 닿는 기회가 주어졌다. 1학년이 끝나갈 무렵 한 학과의 학생회 임원이 될 기회가 생겼다. 단지 대학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해야 할 것이 공부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으로서 공부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다.

지금은 2학년으로서, 학과의 학생회로서 생활하고 있다. 여러 가지 학과 행사들을 맡아 진행하고 준비한다. 힘이 들 때도 있지만 단순히 공부 이외에 내 선택에 의해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름대로 팬츠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도 멋진 추억으로 남는 대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주호재(경영대 국제통상2)

2006학년도 새내기 백일장 운문부문 장원 수상작

신발

김민영(예술대 문창1)

어금니가 시린 밤이었다
나는 운동화를 아홉 번 빨았고
운동화는 빨래걸이에 익숙한 자세로 걸려 있다
있잖아요 엄마,
운동화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하면
엄마는 어디선가 남들이 한 번밖에 신지 않았다는 신발을
남에게 주고 싶은 신발을 신겨주셨다

어금니를 앙다물고
바짝 마른 운동화를 신는 날
철이 없는 발은 신발 속에 구겨진 채로 들썩거렸다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들썩거렸다
그 날 밤도 어금니가 시렸을 것이다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원 향
월 (5/15)	순두부찌개백반 (2000)	육개장 (2000)	된장찌개 (3200)	건새우이육국 (2000)
	치킨카레샐러드 (2500)	제육떡볶이 (2000)	떡배기불고기 (3800)	참깨비엔지떡볶음 (2900)
	날치알볶음/계란후라이 (2000)	참치김치덮밥 (2000)	얼무비빔밥 (3500)	불낙찌개 (2900)
화 (5/16)	짬뽕수제비 (2000)	설렁탕 (2000)	된장찌개 (3200)	쇠고기무국 (2300)
	쇠불고기덮밥 (2000)	해물볶음밥 (2000)	우거지갈비탕 (3800)	카레돈가스정식(2900)
	제육깡뎠볶음 (2000)	갈비경단백반 (2000)	자반구이 (3500)	우거지갈비탕 (2900)
수 (5/17)	참치회덮밥 (2000)	햄숙어찌개 (2000)	된장찌개 (3200)	김치만두국 (2500)
	오징어볶음 (2000)	오징어탕수 (2000)	보쌈 (3800)	철판오삼불고기 (2900)
	함박스튜 (2000)	불고기비빔밥 (2000)	닭도리탕 (3500)	죽서계란짬뽕반 (2900)
목 (5/18)	영양탕죽 (2000)	고치아육국백반/생선가스 (2000)	된장찌개 (3200)	매운콩나물국 (2000)
	치즈돈가스 (2500)	닭갈비해물덮밥 (2000)	해물전골 (3800)	돌솥비빔밥 (2900)
	간풍육 (2000)	화이트오므라이스 (2000)	쇠고기볶음밥 (3500)	시골밥상정식 (2900)
금 (5/19)	감자탕 (2000)	쇠고기미역국 (2000)	된장찌개 (3200)	쇠고기미역국 (2000)
	참치콘볶음밥 (1800)	미트볼하이리이스 (2000)	함박스테이크 (3800)	떡배기불고기 (2900)
	꾸꾸미제육볶음 (2000)	리조죽 (2000)	이구찜 (3800)	춘천닭갈비 (2900)



학생논단

이숙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과정

2006년 독일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 부쩍 느끼는 바로, TV 리모콘을 누르면 금세 TV화면에는 2006년 월드컵을 지원하는 기업체들의 각양각색의 광고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신문에도 역시 월드컵과 관련된 기사가 연일 지면을 장식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최근에 늘어난 월드컵과 관련된 소식과 정보를 접하면서 점점 다가 선 독일월드컵의 열기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우리에게 월드컵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대명사로 각인된 붉은, 붉은 악마가 쓰여진 붉은 티셔츠를 입고 '파이팅'을 외치는 광



독자 사진첩

갯벌위의 배...
고군산군도 제1대의 풍광을 지닌 선유도.
신선들이 와서 놀고 갔다는 그 영광과
그 곳 따라 한가운데 있는 갯벌에서
소금기가 짙은 채로 말라가는 배의 한탄...
여기서 우리는 세익스피어의 비극을 떠올려야 하는가.
-양승목(문과대 국문2)

Again 2002! 그 날의 합성을 기억하며!

고는 2002년 6월 월드컵의 붉은 합성을 떠올리게 한다.

2002년 6월의 그날들은, 그전까지 축구경기를 한 번 끝까지 보지 않은 그 야말로 축구에 대해 문외한이던 나까지 붉게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붉은빛 티셔츠를 꼭 입어야만 될 것 같아서 붉은색 티셔츠를 어렵사리 옷장에서 찾아내어 입고서 거리응원을 하던 나와 내 주변사람들의 모습이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2002년 월드컵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4강신화' 라는 기적같은 승리의 기쁨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그 중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모두 함께 한 날여 동안 축구라는 공통분모로 인해 생겨나는 감정의 희노애락을 토해 내면서 하나되는 일치감을 맛보았다. 나와 같은 붉은 셔츠를 입고 그전까지 합부로 다뤄서 안 된다는 일종의 금기까지 붙어 있던 태극기를 가슴과 등기에다 부착하고 모두가 '대한민국'을 소리 높여 외칠 때 가슴속에는 뭉클한

무언가가 따뜻하게 번지곤 했다. 또한 그 뿐인가, 승리의 기쁨으로 안면없고 낮선 내 옆자리의 사람까지 끌어안을 정도로 너·나의 구별없이 우리는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일체감을 가슴깊이 느낄 수 있었다.

아마도 2002년 6월의 붉고도 열정적인 합성이 한반도를 예뻐하던 날, 우리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는 장엄히 기록되고 또 영원토록 길이길이 기억되리라.

최근에 23명의 월드컵 출전 최종 엔트리 선수가 확정되었다. 이로써, 독일 월드컵은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아드보카트 감독을 중심으로 한 코칭스태프, 선수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태극전사의 위력을 보여 줄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4강신화 재현' 단지 이 명제만이 2006 독일 월드컵에 가는 우리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이왕이면 16강을 넘어 4강에 들어 붉은 태극전사의 위세를 드러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세계에

한국의 역동적인 힘을 자랑해 보이고 싶다. 이 자랑에는 한국축구의 힘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단합된 힘까지 나타내 보이고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에게는 또 해냈다는 뿌듯함과 함께 도전하면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확인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다만, 독일 월드컵에 기대하는 것은, 물론 승리의 환희가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2002년 6월의 합성처럼 붉은 대한민국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보고 싶은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함께 하여 하나 되는 기쁨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그 뿔어져 나온 열정을 독일로 보내자. 그리고, 그 열정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 모든 분야에 퍼져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동약에서도 붉은 물결이 빛어내는 장관과 붉은 합성이 캠퍼스 전역에서 들리기를 기대해 본다. 자! 우리 동약의 백년 기를 한 데 모아 태극전사에게 쏟아 올려보자.

보리소

갈애(渴愛)

불교만큼 인간의 욕망을 철저히 분석하고 경계한 가르침은 흔치 않다. 보통 삼독심(三毒心)이라고 말하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기능은 인간욕망의 근원이다. 사람들은 이 덧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며 갖가지 사연을 만들어 간다. 따라서 초기불교는 이 욕망의 해방을 해탈로 간주한다.

그러나 과연 욕망의 근절이 가능할까. 만약 삶에 욕망이 없다면 '성취'는 있을 수 없다. 욕망은 수단일뿐, 그 자체로서 악한 것은 아니지 않는 가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에 대한 불교의 해답은 바로 '절제'이다. 욕망은 마음이 가진 다양한 기능의 한 부분일 따름이다. 따라서 마음은 욕망에 비해 보면 상위개념이다. 그런 데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이 주객(主客)을 뒤바꾸어 버린다. 그래서 끝없이 다투고, 미워하며, 또 그것을 정당화 시키는 악의 윤회를 거듭하는 것이다. 인간이 이 욕망의 굴레 속을 헤매는 것에 대한 불교의 비유가 바로 갈애(渴愛)이다. 이 갈애라는 말의 원어는 탕하(Tanha)이다. 그 뜻은 '목마른 자가 물을 구하는 애라는 심정'이다. 여러 절실한 생의 단편들이 있지만 이보다 더 직접적인 고통이

없다. 욕망에 눈멀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이 갈애의 심부름꾼이 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눈먼 이들, 대선에 들뜬 이들, 또 사랑과 출세에 온 인생을 거는 이들 또한 결국 이 갈애의 노예일 따름이다.

대승불교에 들어 서면서 '욕망의 단절'이라는 메시지는 서서히 '조절'로 바뀐다. 즉 그릇된 욕망을 향한 갈애가 선한 보살행의 추구쪽으로 방향 선회가 이루어진다. 수행의 목표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자리(自利)며 이타(利他)이다. 욕망을 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지성이다. 이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세이다. 그러나 지성에는 언제나 이기성이라는 개인성이 담겨있다. 따라서 자신에게만 너그럽고, 타인에 대해서는 냉철한 이중구조를 갖게 된다. 사실은 그 거꾸로여야 한다. 그때 필요한 덕목이 수행이다. 참선도 수행이고, 염불도 공부이다. 기도도 방편이고, 보살행도 역시 수행이다. 불교공부의 마지막은 결국 수행에 있다. 하루 한순간일지라도 정신을 집중한다면, 작은 선행하나를 실천하는 일이 바로 현대인의 수행이다.

정병조
문과대학 윤리문화학과 교수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100주년 특집호 인상적 내용 다양성 부족은 아쉬워

지난호 동대신문은 건학 100주년에 딱 맞춰 나온만큼 정말 인상적이었다.

1면부터 우리학교의 캠퍼스 전체 사진과 함께 미담 서정주님의 '무한히 계속될 이 민족사 위에서'라는 시가 눈길을 끌었다. 이 시는 모교의 오랜 학생과 역사를 실감하게 해주고 더불어 전율이 느껴질만큼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10년전에 동문이신 서정주님께서 작고 전 모교의 백주년을 위해 써주셨다는 점에 놀랐다. 또한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의 '기념사'에서는 100주년에 대한 감격과 모교에 대한 애착, 앞으로 학교 발전을 위한 당찬 의지 등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마치 모교발전예 청신호를 알리는 듯 했다. 한편 100주년 관련 기사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군데군데 '취업지원센터 특강', '이공계 인력수급 불균형과 공학인증제' 등 여러 가지 기사들이 실려 좋았다.

일단 취업지원센터 특강에서는 특강 일정과 자격, 주제, 접수 방법 등 실제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이공계 인력수급 불균형과 공학인증제'에서는 현재 이공계 인력의 현황과 공학인증제의 기능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어 있어 도움이 됐다.

그러나 지난호를 읽으면서 내용면에서의 다양성이 부족했음을 느꼈다. 사진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인해 학교에 대한 홍보는 되겠으나, 신문 12페이지 중 4페이지가 마치 전면광고처럼 사진으로 가득 채워져, 현재 학생들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하는 여론, 칼럼, 기획면 등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100주년과 관련된 학생들의 모습은 잘 반영되지 못한 듯 하다.

그러나 특집인 만큼 여러 인사들의 인터뷰와 토론을 통해 학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동국대의 미래를 그려봤다는 점은 유익했다. 항상 신속한 정보를 전해주는 동대신문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좋은 기사 기대해본다. 송인우(공과대 전기1)

취업과 자기계발을 위한 단기강좌

공강시간을 알뜰히 보내자!

- ◆ 일시 및 기간 : 5월 23일 ~ 6월 2일 (주 1회 2시간, 총 2회)
- ◆ 접수 : 5월 11일 ~ 26일 여학생실 (계산관 1층, ☎ 2260-3058)
- ◆ 대상 : 동국인 남녀 누구나 *신청순 마감

강좌명	강사	시간	비고
커리어 포트폴리오 작성과 발표	박선희 취업지원센터 커리어 컨설턴트	5/23(화), 24(수) 3시~5시	다량관 세미나실
이미지 메이킹	김은진 프리랜서 강사	5/25(목), 6/1(목) 1시~3시	다량관 세미나실
입시서류 작성법 및 면접특강	박창욱 (주)K.BRODGE 대표	5/26(금) 2시~4시	학림관 307호
업종별 입사전략	문영철 (주)페이퍼스그룹 대표	6/2(금) 2시~4시	학림관 307호

◆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념품과 간식을 드립니다.

여학생실

달하나 천강에



임 호 일
문과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짜퉁'의 광풍은 언제쯤 사라지려나?

한 때 어느 여자 탤런트가 가짜 세상을 풍자한 노래로 한동안 매스컴을 탄 적이 있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라는 구절이 주요 모티브를 이루는 이 노래는 당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 사람들이 즐겨 부르던, 말 그대로 인기 유행가였다.

지금도 이 노래를 떠올리면 실소가, 아니 씩씩한 웃음이 절로 나온다. 이 노래로 '짜가', 즉 가짜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던 바로 그 사람, 그 탤런트가 그 노래로 번 돈을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매니저로부

터 사기를 당했던 어처구니없는 사건. 이 사건을 떠올리면 정말 그녀의 노랫말로 '세상은 요지경'인가보다.

가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던 장본인이 가짜에게 당하는 아이러니, 이 아이러니가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가짜라는 단어를 전도(顛倒)시킨 짜가라는 단어가 유행할 때만 해도 이 단어는 경종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런데 짜가가 '짜퉁'으로 바뀌면서 어느새 이 단어가 지닌 함의는 경종이 아니라 필요악, 아니 '필요선'이 되어가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사회가 가짜에 속는 것이 아니라 가짜생산의 '공모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다.

가짜 명품, 즉 짜퉁인줄 알면서 그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 가더니 이제는 급기야 짜퉁에도 등급이 생겼다고 한다. 웃어넘기기만 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짜퉁 바람이 상품에 그치지 않고 사람에게까지 거세게 불어 닥치고 있다. 사이버 세계, 가상현실이 우리의 진짜

현실을 위협하고 있다.

영화관에서는 로보카와 매트릭스가 인간을 농락하고, TV광고에서는 평범한 젊은 남자가 슈퍼맨이 되어 날개도 없는 맨몸으로 하늘을 날거나 예수처럼 물위를 걸어 다닌다.

컴퓨터 게임, 휴대폰 게임에 빠진 아이들은 그 속에서 현실을 잊는다. 까딱하다가는 사이보그가, 복제인간이 진짜 인간을 지배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불현듯 온몸이 오싹해진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나쁜 전술시키는 것은 외모 지상주의가 우리 사회에 물고 은 광풍이다.

사이보그와 복제인간은 미래의 일이지만, 그래서 아직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외모지상주의라는 이 광풍은 오늘,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토네이도만큼이나 거센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조상이 물려준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고귀한 얼굴을 난도질해대는 이 광풍은 어디쯤에서 끝날 것인가.

자기 얼굴이 아닌, 성형외과 의사가 만들어준 남의 얼굴, 가짜 얼굴로 보다 아름답게 위장을 해야 취직이 잘되고, 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풍토, 성형수술이 일등급 효도선물로 통용되는 풍토.

이렇듯 내용보다는 외관을 중시하는 풍토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얼굴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즉 우리의 정체성도 잃어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반 외모지상주의의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깨어나라! 떨쳐 일어나라!

스크린에 펼쳐진 소수자의 외침 ... 끊임없는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길

소수 의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회, 차이점을 인정하고 포용할 줄 아는 사회, 이는 바로 우리가 갈망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다. 하지만 '소수자의 인권'을 너무나 손쉽게 묵살해버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 '인권영화제'에서는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을 주제로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아낸 '저항의 영사기'를 마주할 수 있어 반갑다. 인권영화제는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던 관객의 바람을 기억하며 어느새 10돌을 맞아,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아트시네마에서 풍성하게 열렸다. 행사를 주관한 인권운동사랑방은 "전쟁과 분쟁, 행사에 파고든 가난과 차별, 소외 속에서 살아있는 침묵"을 강요받고 있는 아시아 민중의 일상을 스크린을 통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늘 도망칠 준비를 해야 하죠. 내 땅에서 살고 싶지 난민이 되고 싶지 않아요"

초국적기업의 제3세계 지원개발사업이 현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생생히 기록한 '찍인회피'. 이 영화는 버마 야다나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과정에서 군부가 저지른 강제노동, 강제이주 등의 인권침해를 증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밀레나 카네바 감독은 "버마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상영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소송은 이겼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작은 승리에 불과하다"고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관객 이주영(한예중 방송영상과4)씨는 "전쟁과 관련이 있어 관람하게 됐는데 감독과의 대화나 이야기 한마당 등 부대 행사들이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인권영화제는 감독과의 대화와 돌출행사인 문화캠페인이 함께해 더욱 알차다. 문화캠페인은 △사진전 △영화 밖 이야기마당 △작은 음악회 △황새를 영화제로 꾸러져 관객들과의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야기마당에서 국제지구권리 활동가 캐틀

랜슬리 씨는 버마의 전례와 유사한 국내 기업의 가스 개발 협정 사례를 예로 들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인권영화제는 '무료상영'의 원칙을 고집하여 한결같이 달려왔다. 때문에 이를 두고 인권영화제 관계자들은 우스갯소리로 '10년 동안의 사은행사'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누구에게나 영화 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다. 더불어 '장애인 접근권 확보를 위한 노력' 역시 눈여겨 볼만하다. △시각장애인=화면해설, 더빙, 점자리플렛 발간 △청각장애인=우리말 자막, 수화·문자 통역 △지체장애인=경사로 설치, 활동보조인 배치를 통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애초에 정권 탄압에 대항하는 통로로 출발한 투쟁의 장, 독립 다큐멘터리의 가치를 재확인시켜주고 결산하는 자리.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해 골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 이처럼 인권영화제의 가치는 단순한 영화제 그 이상이다. 보편적인 인권에만 주목하는 것에서 벗어나 아시아를 조망하고 그 속에서 한국의 현실을 반성하는 자리로까지 거듭났다. 그동안 지속적인 자기발전을 일궈냈듯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민으로 전진하기를 기대한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취업지원센터 활용Tip

취업 도서 자료실과 취업상담실 이용하기

취업지원센터에는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취업도서자료실과 취업상담실이다.

취업도서자료실은 취업지원센터 내에 있는데 약 500여권의 취업관련 도서가 취업준비생 또는 졸업생들을 도와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물론 따끈따끈한 새 책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100여권씩 구입하고 있어 매년 새로운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최신 자료가 될 것이다.

시험기간처럼 학생들이 열람실을 확보하기 힘들때나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졸업생들은 자료실에서 언제든지 도서이용과 개인적인 취업준비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최근 가장 선호하는 도서는 직무적성검사에 관련된 도서이다. 삼성 SSAT와 종합직무적성검사 등과 같은 책은 동일한 책이 여러 권 비치되어 있어 여러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도서는 최신 시사상식, 창업, 경력개발, 이력서 작성법, 면접가이드, 기업연감, 공무원 시험도서 등으로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도서대여는 여러 학생들이 이용하므로 분실이나 파손의 우려가 있어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취업상담실은 상담의 용도보다는

학생들의 취업스터디를 위한 활동과 기업들의 캠퍼스리크루팅을 위한 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물론 직업에 관련된 검사 이후에 상담을 위한 장소로도 사용된다. 취업스터디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마땅한 장소를 찾을 수 없거나 정기적인 취업스터디를 위한 활동 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실전에 앞서 모의면접을 실시하는 장소로 사용된다. 주로 스터디그룹에 신청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취업준비를 위해 개인적으로 상담실을 활용하기보다는 그룹을 형성하여 취업상담실을 활용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모의면접은 취업지원센터로 전자우편접수나 방문하여 요청하여야 하는데 받고 싶은 날짜에서 최소한 3일 이전에는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필수이다. 모의면접이 접수되면 취업상담실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비디오키오케를 이용하여 실시되는데 기술 면접질문과 인성질문을 통해 면접장과 같은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고 자신의 모습을 TV를 통해 리뷰함으로써 자신의 결점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취업행사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으므로 많은 활용 바란다.

장 지 흥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팀 상담원

2006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안내(공고)

- 수업 일정**
가. 일반강좌 : 2006. 6. 23(금)~2006. 7. 31(월) / 주 3일 수업(월,수,금) 16일간
나. 계절학기강좌 : 일정은 추후 공지
(1) 콜프, 수영 : 16시간 수업
(2) 산사의 생활 : 2박3일
 - 일반강좌 개설 대상 교과목 및 시간**
가. 개설 교과목
- 2006학년도 1학기 및 2학기 교과목 중 계절학기 개설 기준인원을 충족한 교과목
- 단, 사이버강좌 및 학과에서 개설을 원하지 않는 전공·실습교과목은 제외
나. 개설 기준 인원 : 강좌별 10명 이상
다. 개설 시간
- | 이수구분 | 오전시간 | 오후시간 |
|---------|---------------|---------------|
| 교양 | 학수번호 끝자리 홀수강좌 | 학수번호 끝자리 짝수강좌 |
| 전공 및 교직 | 1학기 개설과목 | 2학기 개설과목 |
- * 야간시간 : 야간강좌 개설 교과목
- 수강자격 및 신청절차**
가. 재학생 : 6학점 이내 신청가능
나. 휴학생 : 3학점 이내 신청가능
 - 수강신청**
가. 기간 및 장소
- | 소속 | 신청 기간 | 신청 장소 | 신청 시간 |
|-------|------------------------|------------------|-------------|
| 서울캠퍼스 | 2006. 5. 9(화)~5. 11(목) | 교내 컴퓨터실/실습 개인 PC | 09:00~21:00 |
| 경주캠퍼스 | 2006. 5. 31(수)~6. 2(금) | 경주캠퍼스 학사지원실 | 09:00~17:00 |
- 나. 수강신청 방법
- 정규학기 재학생 : 수강신청 기간내에 교내 실습실 또는 개인 PC로 수강신청
- 9학기이상 재학생 :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서 수강신청 가능
다. 유의사항 : 수강신청 전에 2006학년도 개설과목을 참고하여 신청바람
* 홈페이지→재학생서비스→시간표 및 강의계획서→년도/학기별 조회

- 수강료**
가. 개설 교과목 1학점 당(P/F 과목은 시간당) : 추후 공지
나. 개설 교과목의 특성상 부대경비가 필요한 경우 수강자가 별도로 지비 부담함.
 - 수강신청 취소 및 정정**
가. 정정 기간 : 2006. 5. 16(화)~5. 17(수) 2일간
나. 개설 예정 교과목 안내 : 2006. 5. 15(월) 예정
다. 유의 사항
- 최초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개설예정 교과목"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하오니 폐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취소 및 정정바람.
 - 수강료 납부**
가. 기간 : 2006. 5. 22(월)~5. 24(수) 3일간
나. 방법
- 고지서 출력 : 본교 홈페이지 "재학생서비스→계절학기"에서 선택하여 인쇄
- 수납은행 납부 : 학교 지정은행
다. 유의사항
- 계절학기 수업료는 환불이 불가함
-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수업료 미납으로 수강인원이 미달하면 폐강될 수 있으므로 "교과목 확정 공고"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폐강된 경우 학사지원실로 문의 바람
 - 개설 교과목 수업시간 확정 발표** : 2006. 6. 2(금) 예정
 - 성적 처리**
가. 계절학기 취득 성적은 졸업학점만 인정하며, 장학생 선발 및 학사단계 등 정규학기 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음
나. F학점(과락)은 성적증명서에 등재됨
다. 재수강 : 교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을 재수강한 학생은 자동으로 재수강 처리됨
 - 경주캠퍼스, 타 대학교 계절학기는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지원실로 문의바랍니다.
☎ 02-2260-3043 FAX 02-2260-3042

건학 백주년 기념 생태환경논문 공모전

- 공모 대상** : 동국대학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논문접수 및 마감일** : 9월 11일(월) ~ 9월 15일(금)
- 당선작 발표** : 9월 29일(금)
(홈페이지 게시 및 당선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당선작 공개발표회** : 10월 13일(금) 오후 2:00 ~ 5:30
- 논문제출 및 접수방법**
- 논문 1부(요약 및 연락처 포함)와 디스켓(또는 이메일)제출
- 방문접수(접수시간: 오전 10:00 ~ 12:00, 오후 2:00 ~ 5:00)
-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에 한함)
- 논문 내용** : 불교생태사상, 환경기술 및 공학, 자연환경, 환경경제 등 생태·환경 관련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논문형식으로 정리하여 투고
- 시상내역**
- 대상(총정수) 1명: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대학원생: 최우수상 1명(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 1명(상장 및 상금 50만원)
- 대학생: 최우수상 1명(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 1명(상장 및 상금 50만원)
- 문의** : 전화 : 02)2260-8648, FAX : 02)2260-8649
홈페이지 : www.eco-forum.or.kr
이메일 : ecoforum@dongguk.edu
주소 :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계산관 104호 생태환경연구센터

대학생이 읽어야 할 고전 ⑤ 박지원의 '열하일기'

새 차원을 열어가는 이야기와 담론의 寶庫



조선시대 해외여행은 사행(使行: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위한 여행)으로 제한되고 여행자는 연행록 또는 동사록과 같은 여행일기를 남긴다. 그런데 연행록 중 연암 박지원(燕巖 朴趾源: 1737-1805)의 '열하일기(熱河日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여타 연행록과는 달리 그 편제나 내용, 문체 등이 매우 이채롭기 때문이다. 한 대목을 보도록 한다.

민가들인데도 대개는 다섯 들보가 높이 솟아 있는 집들이다. 이 영집이지만 옹마루가 높이 솟고 문호가 번듯하며 거리는 곧고 평평하여 길가 양측은 먹줄을 친 듯 곧다. 담장은 모두 벽돌로 쌓았고 거리에는 사람 타는 수레, 짐실은 마차가 왔다 갔다 한다. 벌여 둔 그릇은 모두 꽃그림 사기그릇으로 일반 풍물이 하나도 시골타가 없다.

나 질투·시기가 없었는데, 한 번 국경을 넘어 타국의 경내에 발을 들여놓았을 뿐인데도, 아직 그 만분의 일도 못 본 내가 벌써 이런 그릇된 생각을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아직 한 것이 적은 탓일 것이다. 소위 서방 세계를 둘러본다는 석가여래의 밝은 눈으로 본다면 세계는 평등이 아닌 평등이 없을 것이다. 만사가 평등이면 질투도 없을 것이 아닌가? 라 반성하며, 나는 장복에게 물었다. "장복아, 너는 죽어서 중국에 한번 태어나면 어떨까?" "천만에도, 소인은 싫습시다. 중국은 되놈판이니까요." 마침 한 장님이 어깨에 비단 주머니를 둘러메고 손으로 월금을 타면서 지나간다. 나는 깨달았다. '응! 이것이 아랍로 정말 평등한 눈이구나.'

암록강을 건너 청나라 쪽 경계인 책문에 막 들어가며 저자의 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대목이다. 중국의 변방인 책문의 화려함을 보니 질투심이 나 운몽에 불이 난다고 했다. 이는 세상을 널리 보지 못한 탓이라 반성한다. 북경 장유(壯遊)의

의지를 다지는 연암의 마음가짐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열하일기'는 1780년 연암이 사신단을 따라 중국의 북경과 열하를 다녀오면서 보고 들은 것을 적은 일기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철학·역사·문학·예술·정치·경제·천문지리·과학기술·의학·서지학 등에 관한 백과사전적 기록이면서 비평서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치밀한 묘사와 다양한 수사 장치를 동원한 문체, 그리고 역사와 풍자가 번득이는 문장으로 형상화되어 있어, 그 자체로서 가관이다. 하지만 '열하일기'의 패사소품적(稗史小品的) 성향은 정조대왕의 노여움을 샀고, 이른바 문체반정(文體反正)을 야기하였다. '열하일기'를 보면 현상의 이면에 깃든 진실과 진정을 찾아내려는 연암의 예민한 눈과 넉넉한 지성을 만나게 된다. 곧 18세기 실학시대 한 지성의 관념화한 주자학적 지배질서에 대한 비판과 풍자, 그리고 그러한 지배질서에 허덕이는 민중과 나라를 구제하고자 하는 고뇌와 충정, 나아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열하일기'엔 지역과 나라·상하층을 막론한 수많은 인물이 등장한다. 이들을 대하는 연암에게 상하귀천의 관념이나 지역적 편견이 무디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이미 근대인이요 자유인이었던 것이다. 여행은 먼저 진속하고 반복되는 것들로부터의 떠남이며 버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요구한다. 한편 여행은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여행자는 나그네로서 공간적 심리적 경계선에 서게 되고, 따라서 자기 위치를 성찰할 수 있는 객관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열하일기'는 이러한 여행의 정신을 한껏 살린 역사작이라 할 것이다. 요컨대 '열하일기'는 18세기 박지원이란 한 조선인의 자기 성찰이면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 벌여놓은 세계에 대한 통찰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그것은 흥미위주의 패관기서적(稗官奇書的) 성격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김상일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동국 시문학의 발자취

위대한 식사

이재무

산그늘 두꺼워지고 흙 묻은 언장들 허리에 합부로 널브러지고 마당가 매캐한 모깃불 피어오르는 다 늦은 저녁 명석 위 등근 밥상 식구들 말없는, 분주한 수저질 뜨거운 우렁진장 속으로 겹겹이 뛰어드는 밤새 울음, 물김치 속으로 비계처럼 등등 별 몇 점 떠 있고 냉수 사발 속으로 아, 새까맣게 물러오는 풀벌레 울음 배이문 뚝뚝추는 독한, 가담 모를 설움으로 능선처럼 불룩해진 배 트림 몇 번으로 꺼트리며 사립 나서면 태지방 옆구리를 혁혁, 숨이 가쁜 듯 비틀대는 농주에 취한 달의 거친 숨소리 아, 그날의 위대한 반찬들이여

- 시집 '위대한 식사' (세계사, 2002)

거대담론의 시대에서 미시담론의 시대를 거쳐 오는 동안, 사람들은 물론 시인들도 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집 '시간의 그늘'을 읽어보면, 시인은 8,90년대의 한때 민족문학 작가회의 간사를 맡았고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면서 통용(痛用)을 했던 내력이 시집 곳곳에 나타난다. 그러나 시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소시민으로 전락해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분노하며 생태와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십 몇 년 사이에 시집을 6권이나 내는 저력은 그의 시에 대한 열정뿐 아니라, 민주와 삶에 대한 사랑의 표현일 것이다.

'위대한 식사'는 우리 농촌공동체가 아직 해체되기 이전의 건강할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힘든 농사일을 마친 식구들이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모깃불을 피워 놓고 밥상에 둘러앉아, 늦은 저녁식사를 한다. 밥상에는 우렁 진장국과 물김치, 풋고추, 냉수 사발이 올려져 있다. 어찌 보면 초라한 밥상이지만, 식구들이 '말없이' '분주하게' 수저질을 함으로써 하루 동안 열심히 일했음을 입증한다. 그런데 시인은 식구들이 먹는 우렁 진장 속으로 밤새 울음이 뛰어든다, 물김치 속으로 별 몇 점 떠 있고, 냉수 사발 속으로 풀벌레 울음이 물러드는 것을 발견한다. 식사를 하는 행위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일 뿐 아니라, 자연과 하나가 되고 우주와 소통을 하는 과정으로 증폭된다. 이 어찌 거룩한 식사가 아니겠는가?

시인이 서울로 올라와 이십 몇 년을 떠돌면서 자연과 동떨어진 도시의 인공적인 식사에 한없이 서러웠을 것이다. 고향의 소박하지만 풍요로운 식사를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이제 도시에서의 자연은 월근과 시멘트, 콘크리트 더미로 대체되었다. 아무리 해체되고 파편화되었다고 하지만, 도시인들도 자연의 일부로 간주해야 하지 않을까? 시가 불편하지 않을 수 없고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강상운
시인, 동국문학인회 사무국장

건학100주년 기념 '동국대학교 국보전'

각 분야 손꼽히는 국보들이 한자리에

동국대학교 박물관은 개관한 이래 40여년이 지난 지금, 건학 100주년을 맞는 불교종립대학의 명실상부한 불교미술전문박물관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1462년 간경도감에서 찍어낸 국내 유일의 초인본이며, 보물523호 '석보상절'은 불교사 및 국문학사 상 최초의 국문활자본이란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유물일 뿐만 아니라 인쇄 문화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도가 높은 유물이다.

솜씨와 함께 '어의'를 엿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어제 회화작품이다. 또한 보물569호 '一日不讀書 口中生荆棘'은 안중근 의사의 유묵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유물이 지닌 절대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정희림 관음경'은 추사 김정희의 유일한 필사경이란 점에서 매우 가치가 높은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작품은 5월 15일부터 전시되는 보물409호 영탑사 '금동비로자나삼존불상'이다. 이 불상은 오래전에 도난을 당했다가 다시 회수되어 당진 경찰서 무기고에 1년 가깝게 영치되었다가 겨우 돌아온 시한 길은 작품으로 공식적인 전시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특별한 사례이다.

이와 같이 좀처럼 한자리에 모으기 힘든 각 분야 최고의 유물들을 특별 대어 전시하였으며 이 기회를 통해 불교문화재의 우수성과 미적 정수를 보다 인식시키기 위해 최고의 문화유산으로서 그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있음에도 좀처럼 천견의 기회가 없는 여섯 점의 고려시대 불화와 두 점의 조선시대 초기 불화가 국내

동국대학교 박물관장

이번 건학100주년을 기념하는 '동국대학교 국보전'은 박물관과 도서관이 수집, 조사, 그리고 연구해 온 불교문화재와 불교전적을 중심으로 한 국가 지정 문화재들로서, 국보와 보물이 스물다섯 점에 이른다. 이는 여느 대학박물관에 비견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러한 결실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모두 공개된다.

또한 '훈민정음' 언해본이 실려 있어 더 없이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 보물745호 '월인석보'를 비롯해 보물740호 '감지은니보살선경', 보물390호 '상지은니묘법연화경' 등이 출품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보물390호 '감지은니묘법연화경'은 조선시대(1422년)에 서사된 사경으로 국내 최대의 사경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 유물이다.

이밖에도 동국대학교 소장 유물 3천여 점 가운데 지정문화재에 비금가는 소중한 유물들이 엄선되었으며, 통도사명 청동은입사향완'과 1450년의 '여래삼존상'이 특별 전시되는 데, 이 '여래삼존상'은 통도사의 중요한 보물로서 최초의 외부 전시 나들이이다. 그리고 직지사 성보박물관의 국보208호 '도리사 육자사리기'는 대표적인 통일신라시대의 사리기이며, 성암고서박물관 소장의 '어제비장전판화'는 고려 최고의 판본으로 국보중의 국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유물이다.

이와 같이 좀처럼 한자리에 모으기 힘든 각 분야 최고의 유물들을 특별 대어 전시하였으며 이 기회를 통해 불교문화재의 우수성과 미적 정수를 보다 인식시키기 위해 최고의 문화유산으로서 그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있음에도 좀처럼 천견의 기회가 없는 여섯 점의 고려시대 불화와 두 점의 조선시대 초기 불화가 국내

특히,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대표적인 유물인 국보 209호 '보협인석탑', 보물742호 '납석적 삼존불상'과 보물321호 '지정4년명 청동은입사향완', 보물741호 '민애대왕석탑사리호' 그리고 많은 불교의식구 등은 불교 미술사를 언급 할 때 빼놓을 수 없으며, 함께 공개되는 불교 경전 등 중요한 전적류의 의의는 매우 크다.

한편 이번 전시에 출품 되는 유물 가운데 불교 미술품이 아닌, 아주 귀중한 일반미술 명품들이 있다. 국보 176호 '홍치2년명(1489년) 청화백자송죽문호'는 현존 유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일반미술 명품들이 있다. 국보 176호 '홍치2년명(1489년) 청화백자송죽문호'는 현존 유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일반미술 명품들이 있다. 국보 176호 '홍치2년명(1489년) 청화백자송죽문호'는 현존 유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일반미술 명품들이 있다.

전적류들은 미술품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관련 연구자 및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는 드문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국보212호 '수승염경'은

연구소를 찾아서 - ⑤ 자연과학연구원

자연과학 영역간 체계적인 협력 구축



앞장서서 뉴군가를 이끄는 선두 주자가 있는 반면 소리없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손길도 있기 마련이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학교 기초과학

연구의 기반으로서 교수의 연구를 지원하는 곳은 바로 자연과학연구원이다. 자연과학연구원은 크게 기초과학

학·생명과학·자원과학 분야로 연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연과학의 발전을 도모한다.

우리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 지난 1996년 3월 기존의 농림과학연구소와 자연과학연구소, 생명과학연구소를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그렇다면 자연과학 연구원에서는 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까. 먼저 이곳은 각 과의 연구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수와 산업체를 이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산업체에서 과제를 제시하여 인력을 찾는 공고가 뜨면 이를 교수에게 알려주거나 교수가 산업체에 연구비를 지원할 때 필요한 서류작성을 돕기도 한다. 또한 자연과학연구원은 세미나와

학술 행사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연구원들이 창의성 있는 연구과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월 평균 2회 정도 열리며, 성격에 따라 교수나 학생 혹은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이번 달 말에는 생물학과 성장성 교수의 주최로 자리를 마련한다.

및 소속연구원들의 도움이 장으로 활용된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연구 논문집', '자연과학연구원 소식지', '초록집'도 발행된다.

마지막으로 '초록집'은 2000년에 발행하기 시작해 1년에 4번씩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장훈 연구교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많은 연구비를 수주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동국인들에게 많은 연구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인 뒷받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후 관련해서 이장훈 연구교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많은 연구비를 수주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동국인들에게 많은 연구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인 뒷받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자연과학연구원 소식지'는 97년 창간호가 발간되어 매년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자연과학연구원들의 연구활동 및 연구업적, SCI에 등재된 논문 등을 다루고 있으며 대내외적인 자연과학연구원의 기능성 강화

중양도서관 신작도서

디셉션 포인트 1, 2

댄 브라운 지음 / 이창식 역 / 대교베네텔스만, 2006. 5.



'다 빈치 코드'로 우리나라에 알려진 댄 브라운의 2001년도 작품. 작가의 최초 정치 스릴러로 불리는 과학적 발견과 이를 둘러싼 충격적인 정치 음모를 그리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워싱턴 정계, 야육과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그곳에 세기의 정치 음모가 벌어지며 권력과 비틀어진 애국심으로 점철된 추악한 스캔들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완벽예의 총동

정진홍 지음 / 21세기 북스, 2006. 4.



삼성경제연구소의 SERICEO에서 5년간 회원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었던 '정진홍의 감성 리더십'을 편집하여 낸 것으로 엄선된 87명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엘리스 래퍼를 비롯,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어머니의 사랑으로 스포츠 스타로 거듭난 하인스 워드 등 78명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한 삶의 메시지를 전한다.

규제의 역할

김영평 의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2006. 3.



'규제의 역할'은 규제가 역효과를 내를 사례를 통해 규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시장 친화적인 규제 시스템을 모색한다. 대부분의 규제는 정부의 선한 뜻에서 비롯되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규제는 이상(理想)의 땅에 갇히기 쉽다. 결론은 규제를 통해 사회적인 선을 창출하겠다는 생각은 하루 빨리 버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

(윤) yiyoonjae@dongguk.edu